

정언공(正言公) 임명주(任命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Jeongeongong Im Meong-ju's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자필 서간문의 분석 |
| 2. 정언공 임명주의 삶과 학문 | 5. 결론 |
| 3.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묘지명과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묘지명과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제문의 내용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새로 발견된 정언공(正言公) 임명주(任命周, 1705-1757)의 자필 서간을 대상으로 정언공 임명주의 삶과 학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묘지명과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제문에 수록된 정언공 임명주의 관련 행적 및 자필 서간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임명주의 자는 백신(伯新)이고,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영조 9년(1733)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영조 23년(1747)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해 한성참군(漢城參軍),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의 벼슬을 거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어 벼슬생활은 길지 못하였다. 영조 33년(1757) 전주의 학산우사(鶴山寓舍)에서 죽었다. 그의 학문 연원은 조선조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 연원은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황강(黃江: 權尙夏, 1641-1721)이다. 혼맥(婚脈)으로는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학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임명주의 자필 서간은 정언공 임명주가 영조 14년(1738) 2월 8일 여주에 살면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칠촌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32.0 × 46.5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18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수는 본문 183자, 자필로 쓴 연도 14자이다. 칠촌아저씨와 관련된 ‘떡혜지교(覓惠之敎)’, ‘하혜지물(下惠之物)’, ‘교하송(敎下送)’, ‘하홀(下恤)’, ‘백급(白給)’, ‘하송(下送)’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은 봉투인데 ‘族伯父主前 上書’라고 되어 있어 칠촌아저씨께 올린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임명주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행초서에 바탕을 두고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강하고 부드러운 필세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하는 자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너적하면서 민첩하여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엄정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서간은 내용의 전개상 7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임명주의 칠촌 아저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는 임명주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는 체비와 강(講) 하는데 필요한 종이 값을 빌려주고 남은 식구들이 3달 간 곤궁을 면할 수 있는 식량을 빌려준 사람이다. 편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임명주는 영조 14년(1738)의 과거시험에는 실패하였다. 그는 후일 영조 23년(1747)에 식년시 갑과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정언공, 임명주, 정언공 임명주, 자필 서간,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묘지명,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제문

* 본 연구는 2016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6년 2월 24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is paper studies Jeongeongong Im Myeong-ju (1705-1757) in light of his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 by examining his life and academic works, his achievements as written in *Nokmunseonsaengmunjib*'s memorial inscription and in *Yunjidangyugo*'s funeral address, and the bibliography and content of his handwritten letter.

Im Myeong-ju's courtesy name was Baek Shin and his family clan was based in Pungcheon. He passed the classics licentiate (saengwon) level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9th year of Yeongjo's reign (1733) and the higher literary examination in the 23rd year of Yeongjo's reign (1747). That same year he went through the government post of Hansungchamgun and Saganwonjeongeon to become the Saheonbu jipyung. His time in public office was not long due to an involvement in an incident. He died in Jeonju's Haksanusa in the 33rd year of Yeongjo's reign (1757). The origin of his academic studies lay in the late Joseon Dynasty's Yulgok Giho school's Jugipa Seongrihak. The sources are Sagye (1548-1631) → Uam Song Si-yeol → Hwang Kang (1641-1721). Through marriage he became connected to the academic branches of No Ga-jae and Kim Chang-eop.

Im Myeong-ju wrote the letter on February 8 in the 14th year of Yeongjo's reign (1738) when he was living in Yeosu in order to ask his father's second cousin for help gathering travel equipment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letter measures 32.0 cm vertically and 40.5 cm horizontally. The body of correspondence has 18 vertical lines and is blank in the top three horizontal lines. There is a total of 183 letters in the body and 14 letters for years. The words that refer to his father's second cousin such as 'myeokhaejigyo,' 'hahyejimul,' 'gyohasong,' 'hahyul,' 'baekgub' and 'hasong' are preceded by a blank space to show respect. The item on the very front is the envelope, on which is inscribed '族 伯父主前 上書,' showing that it is a letter addressed to his father's second cousin.

Im Myeong-ju's calligraphy is based on Ahn Jin Kyung's semicursive and cursive style, possessing a balance of powerful yet smooth brush strokes and character style and a uniquely natural and vibrant form. The styling of the dots and strokes are ample and witty, having variation for style yet strictly upholding class.

The letter is divided into seven paragraphs according to content. The identity of Im Myeong-ju's father's second cousin is not clear. He is the one who lent Im Myeong-ju money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to buy paper for his studies, as well as lending the rest of Im Myeong-ju's family three months' worth of food. Although it is not mentioned in the letter, Im Myeong-ju fail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14th year of Yeongjo's reign (1738) in spite of the help given by his father's second cousin. It was later in the 23rd year of Yeongjo's reign (1747) that he passed the singnyeonsi (regular examinations), coming in second in the first level of the literary examinations.

This research will henceforward be used in the study of private records and also as the most basic study results in bibliograph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inguistics.

Key words: Jeongeongong, Im Myeong-ju, Jeongeongong Im Myeong-ju, handwritten letter, *Nokmunseonsaengmunjib*'s memorial inscription, *Yunjidangyugo*'s funeral address

1. 서론

정언공(正言公)¹⁾ 임명주(任命周, 1705-1757)는 영조 23년(1747)에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영조시기에 한성참군(漢城參軍), 예조좌랑(禮曹佐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벼슬을 거쳤다. 조선조 6대 성리학자인 임성주(任聖周)의 형이자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오빠이다.

임명주의 학문 연원은 조선조 후기 율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 연원은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황강(黃江: 權尙夏, 1641-1721)이다. 혼맥(婚脈)으로는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학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임명주는 문집도 남아 있지 않고 스스로 지은 글의 흔적이 거의 없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관련된 글은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 권23 『백씨사간원정언부군 묘지명 병서(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와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 하편 『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 2편뿐이다.

이번에 발굴된 서간은 유일한 그의 자필 서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명주가 영조 14년(1738) 여주(驪州)에 살면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칠촌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이 서간에는 집안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는 강한 의지와 끈기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임명주의 자필은 글씨체가 안진경의 행·초서체를 바탕으로 한 달필의 서체로 서예 분야에서도 완미할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임명주(任命周, 1705-1757)는 호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가 일찍이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정6품 벼슬)을 지냈고, 또한 『鹿門先生文集』 권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와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182-192에 실린 『祭伯氏正言公文』에도 '정언공'이라 되어 있어 이름 앞에 벼슬 '정언공'을 붙였다.

현재까지 정언공 임명주에 대한 연구는 남아 있는 글이 거의 없어 학술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다만 필자가 그동안 발표한 원고들과 연관이 있을 뿐이다.²⁾

이번에는 새로 발견된 정언공 임명주의 자필 서간을 중심으로 정언공 임명주의 삶과 학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묘지명과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제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자필 서간의 서지적·내용적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정언공 임명주의 삶과 학문

정언공 임명주에 대한 간략한 전기는 그의 동생 임성주가 쓴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에 의거하여 발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 발췌된 내용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명주는 숙종 31년(1705)에 부친 함흥판관(咸興判官) 임적(任適)과 모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윤부(尹扶)의 딸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백신(伯新)이고,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영조 9년(1733) 식년시 생원 2등 14위로 합격하였다. 일찍이 학행으로 천거되어 명릉참봉(明陵參奉), 동빙고별검(凍氷庫別檢),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등을 지냈다. 영조 23년(1747) 식년시 갑과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해 한성참군(漢城參軍), 예조좌랑(禮曹佐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의 벼슬을 거쳤다. 그해 12월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이 때 숙종 말-경종 초에 소론의 영수로 활약했던 영의정 이광좌

2)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1-118. ;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43-64. ; 강순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231-261. ; 강순애,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4집(2015. 12). 49-79.

(李光佐)와 조태억(趙泰億)의 벼슬을 삭탈하자는 계문(啓文)을 올렸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샀다. 이어 10조목의 건의서를 올려 영조의 소론 중심의 탕평정책을 비판하였다. 이 일로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다음해 봄에 나주로 옮겨졌다가 영조 26년(1750)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7년간 금고되어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고, 영조 31년(1755) 겨울에 중풍에 걸려 2년 후인 영조 33년(1757) 전주의 학산우사(鶴山寓舍)에서 죽었다. 그의 부인은 김언겸(金彦謙)의 딸로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의 증손녀였고, 후처인 양친 허씨는 허규(許珪)의 딸이었다. 슬하에 아들이 없어 임정주(任靖周)의 아들 임렬(任烈)로 대를 이었다. 딸은 넷을 두었는데 사위는 심희영(沈喜永), 이사문(李思問), 이악빈(李樂彬), 김동렬(金東烈)이다. 묘는 충청북도 문의(文義: 현 청원군(淸原郡))에 있었는데, 영조 38년(1762) 충청남도 공주(公州) 선영으로 이장하였다. 조정에서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고 역법을 바꾸자, 법령의 좋지 못한 점을 보고 결포(結布)·호전(戶錢)·속오(束五)의 법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저서 『칠실만주(漆室漫籌)』를 엮었다.³⁾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임명주의 학문은 조선조 후기 울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와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 연원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부록 「유사(遺事)」에 의하면, “윤지당은 고조부이신 평안감사 금시당(今時堂: 任義伯)께서는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마음(心)’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들으셨다. 선친이신 함흥판관 노은공(老隱公: 任適)께서는 백부(伯父)이신 참봉공(參奉公: 任選)과 함께 황강(黃江: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거처하던 제천의 지역 이름)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정직(直)’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⁴⁾고 하였다.

임명주가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공부했는지 알 수 없다. 영조 4년(1728) 부친상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임명주. [검색일자 2016. 1. 7.]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0c_A1705_1_0024146>

4)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241-246. “... 我高祖平安監司今時堂公諱義伯 受業沙溪金先生之門 得聞師心之訓 先考咸興判官老隱公諱適 與伯氏參奉公諱選 出入黃江權先生之門 得聞直字之教 ...”

을 당한 후 가족들과 청주 옥화(玉華)에 들어가 형제들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영조 9년(1733)에 그는 동생인 임성주와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대과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낙방하였고 영조 23년(1747) 봄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 그는 풍천임씨가의 학문과 연원으로 보거나 같은 학문과 연원의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아들인 김언겸(金彦謙)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보거나 학맥으로는 정통 기호학파인 주기파에 속하고 정쟁구도에서는 노론에 속한다.

3.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묘지명과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제문의 내용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 권23에는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가 들어 있고,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 하편에는 「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이 실려 있다. 이 2편의 글을 분석해서 임명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의 내용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는 중제(仲弟)인 녹문 임성주가 그의 형이 죽고 8년이 지난 영조 42년(1766)에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닦으며 임명주의 생줄이력, 지절(志節) 및 행의(行誼)의 대강을 서술하고 명(銘)을 새겨서 무덤 속에 넣으려고 쓴 것이다. 이 묘지명에 나타나는 임명주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의 과거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세상의 도의가 청명해지고 공또한 자력으로 진취할 계획을 세워 공거문자(公車文字)를 익히되 청신하고 정밀

하게 공부하여 29세에 사마시(司馬試)에 높은 등급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 차례 대과에 낙방하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과장이 공정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시권(試券)을 올리며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서를 강송(講誦)하면 얻고 잃는 것은 나를 말미암기에 얻으면 상패할 것이고 얻지 못하더라도 회환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⁵⁾라고 하였다. 그는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여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대과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낙방하자 공부의 방향을 돌려 경서를 강송하여 명경과에 합격하였다.

둘째, 영조 23년(1747) 대간시절에 영조에게 올린 10가지 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보다 먼저 삼사(三司)에서 적신(賊臣)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에 대하여 죽은 뒤에 생전의 벼슬을 삭탈하는 논의를 발의하여 아뢰자 임금의 진노가 대단하여 ‘아침에는 남쪽으로 가라하고 저녁이면 북쪽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르렀으며, 따라서 참여한 대신(臺臣)인 홍서(洪曙)·남덕로(南德老) 등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자 삼사에 잇달아 들어온 자가 모두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회피하기를 꾀하여 감히 연계(連啓)하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 무리는 곧바로 정계(停啓)하는 논의를 발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계하고 한편으로는 연계하는 논의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자가 있었기에 공이 마침내 대각에 나아가 10가지의 계사를 발의하였으니, 그 다섯 가지는 모두 이 일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그 홍서와 남덕로에 대하여 논한 것인데, 의리(義理)의 근원을 쪼개어 설파하고 임금의 마음이 가려진 까닭을 지적하기를 절실히 하여 진정한 탕평(蕩平)을 해야 하는 까닭을 밝힌 것으로 내용이 몹시 격렬하고 절실하였다.”⁶⁾라고

5)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

“… 旣而世道清明則公亦自力爲進取計 爲公車文 清新精工 二十九中司馬高等 然顧屢屈於大科 自念科場不公 與其投券萬衆中 以冀僥倖 毋寧講誦經書 得失由我 得之爲快 不得亦無恨 ….”

6)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

“… 先是三司發賊臣李光佐 趙泰億迫削之啓 天怒大震 至以朝南暮北 斥隨參臺臣洪曙 南德老等 於是繼入三司者 皆畏罪規避 無敢連啓者 其黨則直發停啓之論 又有爲一停一連之論於公坐者 公遂詣臺發十啓 其五皆論此事 而其論洪 南事 劈破義理源頭 指切上心之所以蔽 以明所以爲真蕩平者 語甚激切 ….”

하였다. 임명주는 이 일로 결국 영조의 진노를 사서 국문이 열렸고 그 결과 제주도로 귀양 가게 되었으며 나주로 옮겨졌다가 영조 26년(1750) 겨울에 석방되었다.

셋째, 임명주의 성격과 일상의 처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의 모습은 드날리지 않은 듯하지만 그 광휘는 강렬하여 다른 사람이 의식할 정도였다. 담력(膽力)과 책략(策略)을 지니셨고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하셨으며 작은 일과 작은 절개에는 오활(迂濶)하였다. 그러나 사양하거나 받는 의리에 있어서는 도리어 삼가고 엄격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유는 활달(豁達)하여 경계[畛畦]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보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였고 서류(庶流)와 하천(下賤)에 이르러서도 정성으로 대우하셨다. 이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속임을 당하여도 후회하지 않으셨다.”⁷⁾라고 하였다. 임명주에 대해 이와 같이 잘 표현한 글은 없을 것 같다. 강렬한 광휘가 있는 사람, 남성적인 매력인 담력과 책략이 있었던 사람, 베풀어주길 좋아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사귀는 활달하고 경계가 없었던 사람, 사람을 좋아하여 속임을 당하여도 후회하지 않았던 진정한 대인으로 묘사되었다.

넷째, 그의 문장과 저서와 관련된 것을 보면, “문장(文章)을 지으면 기이하고 건실하며 정교하고 준엄한데, 붓을 잡으면 서서 수천 마디를 써내려가되 곧바로 찬연하게 문장을 이루어 다시 가필하지 않으셨다. … 마침내 한 책자를 초하여 이름을 『칠실만주(漆室漫籌)』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우(士友)로서 당시의 급선무에 관하여 아는 이가 모두 의심할 것 없이 시행할 만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가지 일일 뿐이며 공이 하려고 하신 바를 말하자면 안으로는 관제(官制)·공거(貢舉)⁸⁾에서부터 밖으로는 관방(關防)·성지(城池)·전곡(錢穀)·기계(器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습하고 연마하여 전부 가져다 도맡아 다스려 한 시대

7)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

“… 公貌似不揚而精采射人 有膽略喜施予 濶於細節 然於辭受之義 又却謹嚴不放過 與人交豁達無畛畦 見人有急 必盡心救之 以至庶流下賤 亦待以誠 以此多得人死力 時或見欺而亦不悔 ….”

8) 공거(貢舉): 공사(貢士)를 선발하여 등용한다는 뜻으로, 과거(科擧) 또는 그 시관(試官)을 이르는 말이다.

의 제도를 완성하려고 하셨으니…”⁹⁾라고 하였다. 그의 문장은 기건정초(奇健精峭)하였고, 한 번 쓴 문장은 가필하지 않았다 하니 문장력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 『칠실만주(漆室漫籌)』는 관제(官制)·공거(貢擧)에서부터 밖으로는 관방(關防)·성지(城池)·전곡(錢穀)·기계(器械)에 까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다섯째, 임성주가 지은 묘지명 끝에 붙인 명(銘)은 형 임명주에게 바치는 애사이다. 이를 보면, “세대가 오래되고 풍속이 투박해져, 예의엄치가 펴져지지 않아 사람들 이익을 다투어 따르는데, 국가는 그것을 방지할 계책 무너졌네. 훌륭한 우리 공께서는, 천품이 뛰어나게 호방하고 영특하여, 앞뒤의 우려와 즐거움 속에서도 옛 사람을 사모하고 도를 희망하셨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임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송골매가 참새를 뒤 쫓아 가듯 나는 주자에게 배웠습니다. 천둥 같은 임금의 위엄 저축하고 범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어린 제주도로의 귀양살이는 만 번 죽고 한 번 살아남을 형국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는 풍조가 세상에 넘쳐, 은혜로운 용서를 의뢰할 데 없이, 국가를 경영할 솜씨를 소매에 넣은 채 몇 이랑의 경작을 편안히 여기셨으니 공께서는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 복록이 없는 데야 어찌겠습니까?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하늘이 앗아가기를 어찌 그리 빨리합니까? <공주> 녹문의 묘역에는 측백나무가 무성합니다. 밝으신 영령이시여, <유해를> 거두어 후하게 이장하였습니다. 소제가 묘지명을 <광 남쪽에> 들이면서 눈물에 빗돌이 젖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슬픔을 알리는 것입니다.”¹⁰⁾라고

9) 任聖周, 『鹿門先生文集』卷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

“…爲文章奇健精峭 操筆立書屢千言 卽燦然成章 不復加點 … 遂草成一冊子 詳言結布戶錢束伍之法 名曰漆室漫籌 士友識時務者 咸以爲可行無疑 然此特一事耳 乃若公所欲爲 則內自官制貢擧 外至關防城池錢穀器械 皆欲講貫磨礪 盡取而彌綸之 以成一王之制 …”

10) 任聖周, 『鹿門先生文集』卷23 『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

“…世遠俗偷 四維不張 人爭趨利 國壞其防 允矣我公 天挺豪英 先後憂樂 慕古希文 匪躬蹇蹇 但知有君 如鷓逐雀 我受考亭 觸犯雷霆 不懼不驚 桁楊瘴癘 萬死一生 睚眦溢世 無賴恩宥 袖此國手 安彼十畝 公則日命 奈民無祿 弗能者人 天奪何亟 鹿門之阡 有鬱其栢 爛爛英靈 斂歸厚窆 小弟納銘 涕漬幽石 匪用昭之 唯哀是告 …”

하였다. 임성주는 절제된 문장으로 그의 형 임명주의 아름답고도 슬픈 행적을 알리려고 명을 써서 묘지명을 마무리 하였다.

3.2 『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의 내용

『제백씨정언공문』은 임윤지당이 영조 34년(1758)에 작고한 큰오빠 임명주의 영전에 올린 제문이다. 이 글에는 그의 인품과 불우한 처지 및 가족들 간의 애절한 사랑이 아름다운 문체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제문에 나타나는 임명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의 인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임명주는 영조 34년(1758) 6월 초하루 을묘일(乙卯日)에 작고하였다. 그의 인품은 절륜(絶倫)한 재능과 천고에 드문 지혜와 걸출하신 자질과 세상을 경영하실만한 학문을 갖추었고, 천성이 영웅호걸 같으시고 의지와 기개가 세상을 압도하셨다.”¹¹⁾라고 하였다. 그는 재능과 학문을 갖추고 천성은 남성답고 의지가 굳고 기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는 학문에 있어 공령지학(功令之學)에 비중을 두었다. 공령(功令)이란 과거시험에 쓰이는 여러 문체인 시(詩)·부(賦)·표(表)·책(策)·의(疑)·의(義) 등에 비중을 두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학업이다. 임명주는 영조 9년(1733) 가을에 동생 임성주와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그는 사마시 합격 이후에도 대과 시험공부를 목표로 하였는데 이런 뜻은 제문에 나타나 있다. “도의가 무너진 말세에는 선비가 세상에 나가는 길이 오직 과거(科擧) 밖에 없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 마음을 바로 쓰기만 하면 그 이득이 어찌 반드시 인격 수양의 경전 공부만 못하겠는가?”¹²⁾ 라고 하고, 10여 년을 홀로 공부하여 영조 23년(1747) 봄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

11)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원주시, 2001), 190.
“…有歲次戊寅六月初一日乙卯 小妹申氏婦 謹以薄具荒辭 痛哭而告我伯氏正言公之靈 嗚呼 公其亡耶 以公絕倫之才 邁古之智 間氣之姿 經世之學 英豪天挺 志氣蓋世 …”

12)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원주시, 2001), 190.
“…世降俗末 士之進身 惟在科擧 而操縱在人 能者未必利 反不若講經之得失由己 …”

셋째, 임명주는 대과에 합격하고 대간(臺諫)이 되자 조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 남의 신하가 되어 그 직분(職分)을 다하지 않고 헛되이 녹(祿)만 축낸다면 이는 빈자리나 채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조정에서 관직을 설치한 의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또 말할 책임을 띠고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맹자』가 말한바 ‘우리 임금에 무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금을 해치는 사람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¹³⁾라고 하였다. 이 글에 의하면, 그는 기상이 고상하고 의지가 매우 강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임명주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제문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우회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 드디어 그해(영조 23년, 1747) 겨울에 상주(上奏)하는 글을 올려 당시의 현안(懸案) 문제에 대하여 10조목을 논박하셨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의 노여움이 진동하여 심지어 국문하라는 명령이 계셨습니다. 이 때 형벌이 어느 지경에 그칠지 알 수 없었으니, 어머니의 노심초사와 형제 처자의 놀라고 정황 없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께서는 태연히 내색치 않으시며 ‘내가 바르게 죽을 명분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행히 천우신조로 임금님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남쪽으로 귀양 가게 하셨습니다.”¹⁴⁾라고 하였다. 임윤지당은 실제의 사건 경위를 구체화 하지 않고 죽을 자리에서 의연하게 대처했던 임명주의 의기(義氣)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임명주가 귀양 갔다 돌아온 이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외롭고 고달팠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귀양살이 4년, 귀향, 영조 31년(1755)의 중풍질환, 전주에서의 투병생활, 임정주의 아들 임열(任烈)을 입후(立後)하여 후사(後嗣)

13)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원주시, 2001), 190. “... 人臣而不修其職 徒食其祿 則是具位而已 朝廷建官之意 安在? 且有言責而當言 不言則所謂吾君不能賊其君者也 吾不能爲是矣 ...”

14)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원주시, 2001), 190. “... 遂於是年冬 進啓論時事十餘條 天怒震疊 至有設鞠之命 方此之際 不知天譴之至於何境 慈闈之焦佑 兄弟妻孥之驚惶 難以爲形 而公則夷然不爲動 曰吾得死所矣 幸賴神佑 天威小霽 聿竄南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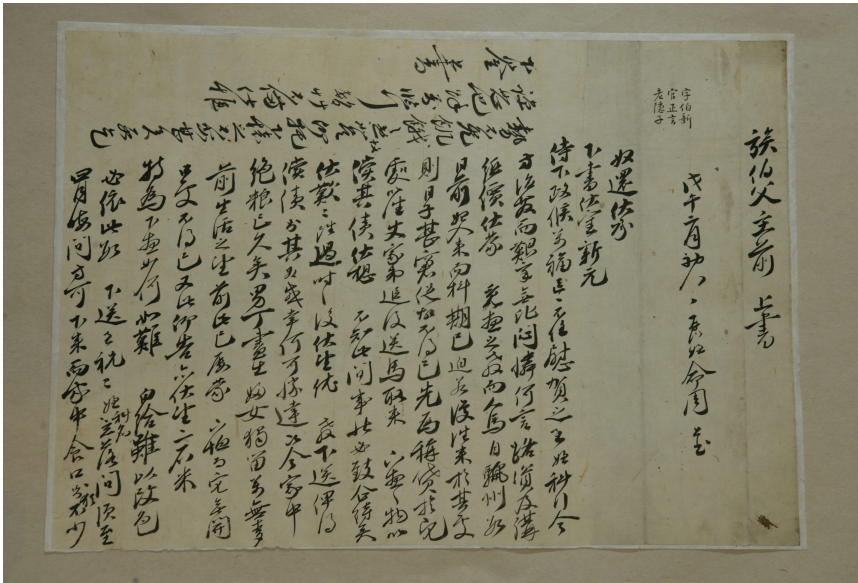
로 세운 일, 영조 34년(1758) 작고한 후의 가슴이 에이는 슬픔 등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4. 자필 서간문의 분석

이 자필 서간은 임명주가 영조 14년(1738)에 칠촌 아저씨에게 올린 글이다. 서간의 봉투에 ‘族 伯父主前 上書’로 하였으니 여주(驪州)에 살면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칠촌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이는 임명주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글이다. 이 서간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4.1 서지적 분석

이 자필 서간은 정언공 임명주가 영조 14년(1738) 2월 8일 여주에 살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칠촌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32.0 × 46.5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18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183자, 자필 년도 14자이다. 칠촌 아저씨와 관련된 ‘떡혜지교(覓惠之教)’, ‘하혜지물(下惠之物)’, ‘교하송(教下送)’, ‘하홀(下恤)’, ‘백급(白給)’, ‘하송(下送)’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은 봉투인데 ‘族 伯父主前 上書’라고 되어 있어 칠촌 아저씨께 올린 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임명주의 자필 서간











정언공 임명주의 자필 서간은 자신이 직접 쓴 원본이다. 임명주 글씨체는 안진경의 행초서에 바탕을 두고 강하고 부드러운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하는 자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넉넉하면서 민첩하여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엄정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주의 글씨체는 안진경체를 철저히 기본으로 하는 글씨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능서가(能書家)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 부림의 글씨들과 연서한 글자들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이러한 글자체들을 표집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임에 있어서는 ‘이(已)’자 다섯 자와 기타 先, 它, 色, 祝, 免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글자들은 파임 처리에 있어 유사한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글씨체에 다양

한 변화의 미를 가하여 기교를 부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들을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已)자와 기타 글자들 파임의 다양한 글씨체

구분	①	②	③	④	⑤
已	 (科期已迫-已)	 (不得已先爲-已)	 (絶糧已久矣-已)	 (前次已屢蒙-已)	 (不得已又此仰告-已)
기타	 (不得已先爲-先)	 (於它處以往-它)	 (難以改色-色)	 (至祝至祝-祝)	 (勢不免飢餓之患-免)

<표 1>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已)’ 자는 안진경체에서는 단아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정언공 임명주의 글씨체의 특징은 ①의 ‘已’와 ②의 ‘已’는 파임의 종획, 횡획 및 끝머리를 마무리하는 획이 모두 길다. ①의 ‘已’는 파임의 종획을 약간 경사지게 내려 굵고 종획에서 횡획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각이 있고 횡획은 약간 들어 올려 길게 빼서 끝마무리 획까지 힘차게 마무리하였다. 이에 비해 ②의 ‘已’는 파임의 종획을 부드럽게 안쪽으로 당겨 내려서 곡선형을 만들되 횡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횡획은 약간 경사지게 위로 길게 빼고 끝마무리 획은 횡획과 구분을 두면서도 위로 길게 처리하여 예술적인 글자체를 만들었다. ③의 ‘已’와 ④의 ‘已’는 파임의 처리가 유사하지만, ④ ‘已’의 끝마무리 획이 더 부드럽다. ⑤의 ‘已’는 글자의 전체 각도가 심하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파임은 종획이 짧고 횡획은 우측 방향으로 길게 빼서 마무리 획을 짧게 처리하였으며 기울기를 잘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둘째, 기타의 다섯 글자체도 파임에서 그 특징이 돋보이는 글자들이다. 기타

①의 ‘先’과 ④의 ‘先’은 파임의 처리에 있어서 중획, 횡획 및 끝마무리 획이 매우 비슷하다. ① ‘先’의 어진사람인발 ‘儿’의 좌측획인 인(人)은 거의 일자형으로 좌측으로 빼고 공간을 두어 파임의 중획을 직선에 가깝게 짧게 내려서 약간 부드럽게 횡획으로 연결하고 횡획도 거의 수평으로 짧게 처리하고 끝마무리 획은 힘을 주어 살짝 쳐 올렸다. ④ ‘先’의 ‘儿’의 좌측획은 거의 일자형으로 좌측으로 빼고 파임의 중획은 좌측 획에 붙여서 직선에 가깝게 짧게 내려오다가 약간 부드럽게 횡획으로 연결하고 횡획은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끝마무리 획까지 처리하고 있다. ⑤의 ‘先’은 파임의 처리가 ①과 ②와는 다르다. ‘儿’의 좌측획은 윗변의 획과 연결하여 좌측으로 빼고, 파임은 새을(乙)의 변형처럼 보이게 파격으로 써서 좌측 획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②의 ‘先’와 ③의 ‘先’은 파임의 중획, 횡획 및 끝마무리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 ② ‘先’의 파임 처리는 중획이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내리고 부드럽게 곡선형으로 횡획으로 밀어서 길게 빼서 끝마무리 획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가늘게 위로 올리고 있는데 매우 아름답다. ③ ‘先’은 빛색 ‘色’의 윗부분을 작게 쓰고 아래쪽 파임이 윗부분을 안고 있는 듯한 모양이다. 중획은 짧게 횡획은 길게 빼되 멈춤이 있고 끝마무리 획은 길게 위로 올리고 있다.

2) 장날(長捺: 오른쪽 빼침의 파임)의 글자들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환(還)’, ‘지(之)’, ‘송(送)’, ‘과(過)’, ‘달(達)’의 글자를 <표 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장날(長捺)의 다양한 글씨체

구분	①	②	③	④	⑤
글씨체					
	(奴還-還)	(慰賀之至-之)	(追後送馬-送)	(雖過時之後-過)	(何可勝達-達)

<표 2>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① ‘送’, ③ ‘送’, ④ ‘送’, ⑤ ‘送’에 나타나는 책받침 ‘之’은 필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① ‘送’과 ④ ‘送’는 책받침의 파임이 경사지게 운필하여 멈춤이 있지만 굵고 짧게 마무리하고 있다. ③ ‘送’과 ⑤ ‘送’은 책받침의 파임은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고 오목하게 멈춤이 있는 듯 다음 획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다음 획의 처리가 ③ ‘送’은 길게, ⑤ ‘送’은 경사지게 위로 올리면서 짧게 마무리하고 있다.















둘째, ‘지(之)’는 안진경체의 특징이 잘 살아 있는 글씨체이다. 정언공 임명주가 쓴 ② ‘之’의 장날(長捺)의 파임 획은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여 오목하게 멈춤하여 다시 위로 두툼하게 올려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3) 초서의 연서법에서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연결해 멋을 부리거나 수려하게 운필하고 있는데, 이들 연서된 글자체들에는 안진경의 초서 운필법(運筆法)의 특징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정언공 임명주만의 독특한 초서 필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를 <표 3>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연서한 글씨체

구분	①	②	③	④	⑤
두 글자 연서					
	(上書)	(不任)	(日前)	(男丁)	(如何)
세 글자 연서					
	(不得已)	(下惠之)	(不知此)	(四月晦)	(諒恕也)

<표 3>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언공이 두 글자를 연서하여 한 글자처럼 몇 부림의 글자체로 쓴 것으로는 ① ‘上書 와 ‘上書 ’, ② ‘不任 ’, ③ ‘日前 ’, ④ ‘男丁 ’, ⑤ ‘如何 ’ 등이다. ① ‘上書’는 ‘’와 ‘’의 두 형태이다. ‘’는 서간의 본문 끝에 쓴 것으로 ‘上’의 작은 글자가 ‘書’의 큰 글자 오른 쪽 위에 살짝 얹혀있는 듯하고, ‘’는 아래와 윗글자의 폭이 비슷하고 ‘上’이 아슬아슬하게 ‘書’의 꼭대기에 달려있는 상태이다. ② ‘不任 ’은 ‘不’자를 작게 하고 ‘任’을 크게 하되, ‘任’의 사람인 ‘亻’의 왼쪽 빼침 획을 경사지게 길게 하여 그 위에 ‘不’이 얹혀있는 형국이다. ③ ‘日前 ’의 ‘日’은 정 가운데에 작게 쓰고 ‘前’은 좌측으로 약간 기울여 크게 쓰고 마지막 세로획과 갈고리 획을 굵고 멋들어지게 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④ ‘男丁 ’의 ‘男’과 ‘丁’을 크게 쓰고 특히 ‘丁’의 가로획을 길게 하여 ‘男’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如何 ’의 ‘如’는 작게 하고, 입구 ‘口’의 마지막 획과 ‘何’의 사람인 ‘亻’의 왼쪽 빼침 획을 길게 하나로 연결하고 ‘可’는 사이를 두어 마지막 세로획과 갈고리 획을 멋들어지게 마무리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둘째, 세 글자를 연서하여 초서의 특징을 살리고 있는데, ① ‘不得已 ’, ② ‘下惠之 ’, ③ ‘不知此 ’, ④ ‘四月晦 ’, ⑤ ‘諒恕也 ’이다. ① ‘不得已 ’는 ‘不得’의 두 글자를 한 글자 형태로 쓰고, ‘已’는 두 글자를 안정되게 떠받드는 형세를 갖추고 있다. ‘下惠之 ’는 ‘下惠’의 비중을 같게 하고 ‘之’를 작게 하여 세 글자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균형미를 살렸다. ③ ‘不知此 ’는 가운데 ‘知’자를 크게 하고 ‘不’자와 ‘此’자를 작게 하여 전체의 형세와 조화를 맞추었다. ④ ‘四月晦 ’는 ‘四月’의 두 글자를 한 글자의 형태로 쓰고, ‘月’의 마지막 획을 ‘晦’의 날일 ‘日’로 연결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⑤ ‘諒恕也 ’는 왼쪽으로 기울여 썼지만 세 글자가 가는 선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맞추어 썼다.

4.2 내용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언공 임명주의 글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임성주의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와 임윤지당의 『제백씨정언공문』을 통해서 그의 생애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밝힐 수 있을 뿐이다.

이 자필 서간문은 매우 중요한 1차 자료이다. 정언공 임명주가 영조 14년(1738)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애썼던 정황을 살필 수 있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글이다.

세부 내용의 전개 상 전문에 토를 붙여 <표 4>로 소개하고, 해석의 전문을 <표 5>로 제시하며, 임의로 <표 6>과 같이 7단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표 4> 정언공 임명주의 자필 서간 전문 및 토

<p>1) 奴還에 伏承下書하니 伏審新元에 侍下政候萬福하고 區區不任慰賀之至라 姪은 科行今方治發而艱年無比하니 悶憐何言이리오//</p> <p>2) 路資及講紙價는 伏蒙 寬惠之教而人馬自驪州로 數日前에 始入來라//</p> <p>3) 而科期已迫하니 若復往來於其處면 則日子甚窘促이라 故不得已先爲稱賀於它處以往하니 使家弟追後送馬하야 取來 下惠之物하야 以償其債라//</p> <p>4) 伏想 不知此間事狀하고 必致企待矣러니 伏歎伏歎이라 雖過時之後라도 伏望依 教下送하야 俾得償債면 則其爲感幸을 何可勝達이리오//</p> <p>5) 次今家中에 絕糧已久矣라 男丁盡出하고 婦女獨留한대 萬無麥前生活之望이라 前次已屢蒙 下恤한대 而它無開口處하야 不得已又此仰告하니 亦伏望二石米를 特爲下惠如何오 如難 白給이면 雖以改色이라도 必依此數 下送을 至祝至祝이라//</p> <p>6) 姪科名立落間에 須至四月晦間에야 方可下來而家中食口 則猶不少하고 勢不免飢餓之患이라 故如是仰託하니 下懷之不安甚矣라 更乞諒恕也라//</p> <p>7) 餘萬臨行에 暫草하야 不備하옵고 伏惟下鑑하오며 上書하노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戊午 二月初八日 再從姪 命周 上書</p>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표 5> 정언공 임명주의 자필 서간 해석 전문

1) 노비가 돌아오는데 삼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새해에 부모님 모시고 베풀하시는 체후가 편안하심을 알게 되니 구구하게 위안이 되고 하례 드리는 지극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 조카는 과거 보러 가는 행장을 꾸려 방금 출발하는데 흥넌든 것이 비할 데가 없으니 가련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오. 길 떠나는 채비와 강(講)하는데 드는 종이 값은 찾아가라는 은혜로운 가르침을 입고 인마(人馬)가 여주로부터 수일 전에 비로소 들어왔습니다.//

3) 하오나 과거 기일이 이미 촉박하여 만약 다시 그곳에서 왕래하게 되면 날짜가 매우 근색하고 촉박할 것이기에 부득이 우선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가며 동생을 시켜서 추후에 말을 보내어 은혜로이 내려주신 물건을 가져와서 그 빌린 것을 갚을 것입니다.//

4) 옳드려 생각하건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의 상황은 자세히 모르시고 기대하셨을 터이니 삼가 탄식스럽습니다. 바라옵건대 비록 시간이 지난 이후라도 하고하신 대로 하송하셔서 빌린 것을 갚도록 해주신다면 감사와 다행함을 어찌 이루 다 진달하겠습니까?//

5) 다음은 지금 집안에는 식량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남정네는 다 나가고 부녀만 머물고 있는데 보리 수확 전에 생활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달리 말씀드릴 곳이 없어 부득이 또 이렇게 우러러 고하오니 2석(4가마)의 쌀을 특별히 내려주시면 어떨는지요? 현물이 어려우시면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반드시 이 수에 따라 하송해 주시길 빌고 빕니다.//

6) 조카는 과거에 불거나 떨어지던가 간에 모름지기 4월 그믐 사이에야 바야흐로 내려올 터인데 집안 식구는 오히려 적지 않아 형세가 기아의 근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이처럼 우러러 부탁하오니 아랫사람 마음이 불안합니다. 다시 헤아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7) 나머지는 길을 떠나면서 대강 쓰느라 갖추지 못하오니 삼가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글을 올립니다.//

무오 (영조 14년, 1738) 2월 8일 칠촌 조카 명주는 편지를 올립니다.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표 6> 정언공 임명주의 자필 서간의 단락 구성

단락	핵심 내용
1) 단락	정언공 임명주가 칠촌 아저씨에게서 연락을 받고 인사를 드리는 것임.
2) 단락	과거시험(대과)을 보러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가뭄이 극심하고 길 떠나는 채비와 강(講)하는데 드는 종이 값을 칠촌 아저씨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여 인마가 여주로 들어옴.
3) 단락	과거시험이 촉박하여 필요한 것은 다른 데서 빌리고 동생으로 후일 도움 받은 것을 찾게 하고 빌린 것을 갚도록 함.
4) 단락	빌린 것을 바로 갚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하여 갚도록 함.
5) 단락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2석(4가마)의 쌀이나 다른 것이라도 빌려주기를 청함.
6) 단락	과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4월 그믐 사이에야 바야흐로 내려올 터인데 집안 식구는 많고 형세가 기아의 근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걱정함.
7) 단락	길을 떠나느라 편지로 예를 다하지 못하고 대강 쓴 무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람.

1) 1단락은 정언공 임명주가 칠촌 아저씨에게서 연락을 받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칠촌 아저씨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칠촌 아저씨가 벼슬을 하면서 임명주 집안의 곤궁한 처지에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여겨진다.

2) 2단락은 임명주가 과거시험(대과)을 보러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가뭄이 극심하고 길 떠나는 채비와 강(講) 하는데 드는 종이 값을 칠촌 아저씨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여 인마(人馬)가 여주로부터 수일 전에 들어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임명주는 영조 9년(1733) 식년시 생원 2등 14위로 합격하였다. 일찍이 학행으로 천거되어 명릉참봉(明陵參奉), 동빙고별검(凍水庫別檢),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등을 지냈다. 영조 23년(1747) 식년시 갑과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 편지는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옮기고, 이듬해인 영조 14년(1738) 2월 8일에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려고 쓴 편지이니 이 시기에는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과거시험이 촉박하여 필요한 것은 다른 데서 빌리고 동생으로 후일 도움 받은 것을 찾게 하고 빌린 것을 갚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명주가 과거시험을 보려고 하였던 영조 14년(1738)은 그의 나이가 34세였다. 그는 7남매의 맏이여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였다. 24세이던 영조 4년(1728)에 아버지 임적(任適)이 돌아가셨고, 이듬해인 영조 5년(1729)에 모친을 모시고 청주(淸州) 옥화대(玉華臺)로 들어가 형제들과 학업을 익혔다. 29세이던 영조 9년(1733)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동생 임명주와 함께 사마시에 응시하였다. 33세이던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겨서 영조 19년(1743)에 다시 서울로 이거하여 6년간 머물렀다. 여주로 이사한 이듬해인 영조 14년(1738)에 대과 시험을 보려고 시도했던 시기였다.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필요한 채비와 강(講) 하는데 드는 종이 값도 없어서 찢절매던 곤궁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4) 4단락은 칠촌 아저씨에게 빌린 것을 바로 갚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하여 갚도록 하려는 것이다. 빌려주는 쪽에서는 바로 갚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사정이 너무 곤궁하여 어쩔 수 없이 후일을 기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 5단락은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2석(4가마)의 쌀이나 다른 것이라도 빌려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임명주는 과거시험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빌리고 다시 남아 있는 식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버텨야 할 식량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니 이러한 곤궁한 지경에서 과거시험 보러 떠나는 그의 심정과 가족들의 곤궁이 가히 짐작이 된다.

6) 6단락은 과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4월 그믐 사이에야 바야흐로 내려올 터인데 집안 식구는 많고 형세가 기아의 근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하였다. 가족들이 기아의 근심을 벗어나지 못할까 조바심을 하면서 마음을 채근하고 부탁을 꼭 들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

7) 길을 떠나느라 편지로 예를 다하지 못하고 대강 쓴 무례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임명주는 칠촌 아저씨께 이러한 부탁의 편지를 쓰는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주길 바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글은 내용의 전개상 7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임명주가

33세이던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듬해인 영조 14년(1738) 대과 시험을 보려고 시도했던 시기였다. 임명주의 칠촌 아저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임명주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는 채비와 강(講) 하는데 필요한 종이 값을 빌려주고 남은 식구들이 3달 간 곤궁을 면할 수 있는 식량을 빌려준 사람이다. 편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임명주는 영조 14년(1738)의 과거시험에는 실패하였고, 후일 영조 23년(1747)에 식년시 갑과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5. 결 론

정언공(正言公) 임명주(任命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명주(任命周, 1705-1757)의 자는 백신(伯新)이고,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영조 9년(1733)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영조 23년(1747)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해 한성참군(漢城參軍),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의 벼슬을 거쳐 그해 12월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소론의 영수로 활약했던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조태억(趙泰億)의 벼슬을 삭탈하자는 계문(啓文)과 10조목의 건의서를 올려 영조의 소론 중심 탕평정책을 비판하였다. 이 일로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영조 26년(1750)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7년간 금고되어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고 영조 33년(1757) 전주의 학산우사(鶴山寓舍)에서 죽었다. 그의 학문 연원은 조선조 후기 울곡계(栗谷系)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파(主氣派) 성리학에 두고 있다. 그 연원은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황강(黃江: 權尙夏, 1641-1721)이다. 혼맥(婚脈)으로는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학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2)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 권23에 실린 「백씨사간원정언부군묘지명 병서(伯氏司諫院正言府君墓誌銘 並序)」는 녹문이 영조 42년(1766)에 슬픔을 머금

고 눈물을 닦으며 임명주의 생졸 이력, 지절(志節) 및 행의(行誼)의 대강을 서술하고 명(銘)을 새겨서 무덤 속에 넣으려고 쓴 것이다. 이 묘지명에 나타나는 임명주의 구체적인 행적은 그의 과거시험과 관련된 부분, 영조 23년(1747) 대간시절에 영조에게 올린 10가지 계사와 관련된 내용, 임명주의 성격과 일상의 처신에 대한 언급, 그의 문장과 저서와 관련된 내용, 이름답고도 슬픈 행적을 적은 명(銘) 등이다.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 하편에 실린 「제백씨정언공문(祭伯氏正言公文)」은 영조 34년(1758)에 작고한 큰오빠 임명주의 영전에 올린 제문이다. 이 글에는 그의 인품과 불우한 처지 및 가족들 간의 애절한 사랑이 아름다운 문체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제문에 나타나는 임명주의 구체적인 행적은 그의 인품과 관련된 부분, 공령지학(功令之學)에 비중을 두었던 학문, 대과에 합격하고 대간(臺諫)이 되자 그가 조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 순탄하지 않았던 관직생활, 귀양 갔다 돌아온 이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외롭고 고달팠던 상황들을 다루고 있다.

3) 임명주의 자필 서간은 영조 14년(1738) 2월 8일 여주에 살면서 과거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부분을 칠촌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32.0 × 46.5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18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183자, 자필연도 14자이다. 칠촌아저씨와 관련된 ‘떡혜지교(覓惠之教)’, ‘하혜지물(下惠之物)’, ‘교하송(教下送)’, ‘하훈(下恤)’, ‘백급(白給)’, ‘하송(下送)’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맨 앞쪽의 봉투에 ‘族 伯父 上前 上書’라고 되어 있어 칠촌 아저씨께 올린 편지임을 알 수 있다.

임명주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행초서에 바탕을 두고 강하고 부드러운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하는 자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넉넉하면서 민첩하며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엄정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씨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已)’자의 경우 ‘’와 ‘’는 파임의 종획, 횡획 및 끝머리를 마무리

하는 획이 모두 길다. ‘ㄷ’는 파임의 종획, 횡획, 끝머리를 마무리하는 획이 부드러우면서도 예술적인 글자체를 만들었다. ‘ㄷ’와 ‘ㄷ’는 파임의 처리가 유사하고, ‘ㄷ’는 글자의 전체 각도가 심하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타 ‘先’의 ‘儿’은 파임의 처리에 있어서 종획, 횡획 및 끝머리 획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다. ‘先’은 파임의 처리가 ‘儿’의 좌측 획은 윗변의 획과 연결하여 좌측으로 빼고, 파임은 새을(乙)의 변형처럼 보이게 파격으로 써서 좌측 획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兒’와 ‘包’은 파임의 종획, 횡획은 비슷하고, ‘兒’의 끝머리 획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가늘게 위로 올리고 있는데 매우 아름답고, ‘包’은 윗부분을 작게 쓰고 아래쪽 파임이 윗부분을 안고 있는 듯한 모양이다. 끝머리 획은 길게 위로 올리고 있다

둘째, 장날(長捺: 오른쪽 빠짐의 파임)의 글자들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送’과 ‘送’는 책받침의 파임이 경사지게 운필하여 멈춤이 있지만 굵고 짧게 마무리하고 있다. ‘送’과 ‘送’은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고 오목하게 멈춤이 있는 듯 다음 획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마무리는 다르다. ‘之’는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여 오목하게 멈춤 하여 다시 위로 두툼하게 올려 마무리하였다.

셋째, 초서의 연서법에서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연결해 멋을 부리거나 수려하게 운필하고 있는데, 두 글자를 연서하여 한 글자처럼 멋 부림의 글자체로 쓴 것으로는 ‘上書’의 ‘書’와 ‘書’이다. ‘書’는 ‘上’의 작은 글자가 ‘書’의 큰 글자 오른쪽 위에 살짝 얹혀있는 듯하고, ‘書’는 아래와 윗글자의 폭이 비슷하고 ‘上’이 아슬아슬하게 ‘書’의 꼭대기에 달려있는 상태이다. ‘不任’의 ‘任’, ‘男丁’의 ‘丁’, ‘如何’의 ‘何’는 윗글자를 작게 하고 아랫글자를 크게 하여 윗글자가 아랫글자에 얹혀 있는 형국이다. ‘日前’의 ‘日’은 정 가운데에 작게 쓰고 ‘前’은 좌측으로 약간 기울여 크게 쓰고 마지막 세로획과 같고리 획을 굵고 멋들어지게 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세 글자를 연서하여 초서의 특징을 살리고 있는 글자를 살펴보면, ‘不得已’의 ‘已’와 ‘四月晦’의 ‘晦’는 앞의 두 글자를 한 글자 형태로 쓰고, 마지막 글자가 안정되게

떠받드는 형세를 갖추고 있다. ‘下惠之^之’는 ‘下惠’의 비중을 같게 하고 ‘之’를 작게 하여 세 글자의 흐름이 위에 아래로 흘러내리는 듯한 균형미를 살렸다. ‘不知此^此’는 가운데 ‘知’자를 크게 하고 ‘不’자와 ‘此’자를 작게 하여 전체의 형세와 조화를 맞추었다. ‘諒恕也^也’는 왼쪽으로 기울여 썼지만 세 글자가 가는 선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맞추었다.

4) 서간은 내용의 전개상 7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임명주가 33세이던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듬해인 영조 14년(1738)에는 대과 시험을 보려고 시도했다. 임명주의 칠촌 아저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는 임명주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는 채비와 강(講)하는데 필요한 종이 값을 빌려주고 남은 식구들이 3달 간 곤궁을 면할 수 있는 식량을 빌려준 사람이다. 편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임명주는 영조 14년(1738)의 과거시험에는 실패하였으며, 후일 영조 23년(1747)에 식년시 갑과 2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참고문헌>

-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1-118.
- 강순애. “『운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43-64.
- 강순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231-261.
- 강순애.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4집(2015. 12). 49-79.
- 任聖周.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卷, 附錄, 合13冊. 정조 19년(1795).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3)

任允摯堂.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 정조 20년(1796).

任允摯堂, 조선시대사학회 역주. 『국역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원주시, 20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임명주. [검색일자 2016. 1. 7.]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lId=PPL_6JOc_A1705_1_0024146>